

‘메디치상 수상’ 한강 “독자도 ‘작별하지 않는 마음’ 느껴주길”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 역사적 배경 달라도 이해 가능”

▶관련 기사 A8(한국2면)
“제가 최근에 낸 장편 소설로 상을 받게 돼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일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4대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받은 한강은 불어판을 출간한 그라세(Grasset) 출판사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차분한 목소리로 이같이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강은 “선정 이유에 대해선 특별히 듣진 못했다”며 “시상식도 제가 생각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식당에서 같이 사진 찍고 샴페인 마시는 그런 격식 없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한강이 2016년 ‘채식주의자’ 부커상 수상

이후 5년 만인 2021년 펴낸 장편 소설로, 제주 4·3의 비극을 세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소설가인 주인공 경하가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 친구 인선의 기억에 의존한 아픈 과거사를 되짚는 내용이다.

프랑스에서는 최경란·피에르 비지우의 번역으로 지난 8월 말 출간됐다. 불어판 제목은 ‘불가능한 작별’(Impossibles adieux)이다. 이 작품은 메디치 외국문학상에 이어 지난 6일 발표된 페미나 외국문학상 최종 후보에도 올랐다. 한강은 수상까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최종 후보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제주 4·3사건이라는 무거운 역사 소재가 프랑스 독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됐을까.

한강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을 다룬다는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해 질문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명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고 해도 단언해서 공유하는 것이 있어서 당연히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강은 “제목이 ‘작별하지 않는다’인데, 제가 달고 싶은 마음이 끝없는 사랑, 작별하지 않는 마음이었다”며 “그 마음을 독자들이 느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면서 사건 관련자를 직접 만나 대신 기문에 연구된 자료들을

대부분 활용하고 제주도에 자주 내려가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소설을 쓴다는 이유로 그분들(제주 4·3 관련자)의 상처를 다시 열고 싶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하면 다음 작품을 쓸 때 압박은 없을까.

한강은 “글을 쓸 때는 소설 완성부에는 생각할 여력이 없어서 독자의(반응)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글을 쓰는 순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다소 무겁게 있는 소설을 써 온 한강은 지금은 서울을 배경으로 한 ‘겨울 3부작’을 집필하고 있다.

한강은 “한국 현대사에 대해선 그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작가 한강이 9일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한 뒤 현지 출판사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제 소설엔 겨울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준비하는 건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이야기일 것 같고, 바라건대 다음엔 좀 봄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작별하지 않는다’가 프랑스어로 번역되는 데에는 7개월가량 걸렸다. 이 과정에서 번역가가 작품에 대해 한강에게 물음을 던진 적이 없었다고 한다.

작업을 한 최경란 번역가는 “이 작품은 주인공도 세 명이고,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하며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며 “그렇지만 너무 서사가 투명하고 맑아서 질문이 생길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지 출판사는 초판 5천부를 인쇄했으나 이날 메디치상 수상 이후 1만5천부를 새로 찍기로 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따라 美 대학가도 “전쟁” 反유대주의·反무슬림 둘러싸고 갈등 심화 한달새 129개 대학에서 ‘증오 범죄’ 309건

NYT “허용되는 발언 수위 논쟁”

지난달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반유대주의·반무슬림 이슈를 둘러싸고 미국 대학 캠퍼스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유대인 캠퍼스 단체인 힐렐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한 달간 미국 내 129개 대학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와 연관된 증오 발언, 기물파손, 괴롭힘 또는 폭행 사건이 총 309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뉴욕타임스(NYT)가 9일 보도했다.

이는 2022년 한 해 동안 이 같은 사건이 40개 캠퍼스에서 총 50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반면 미·이슬람관계위원회는 비슷한 기간 미국 대학 내에서 반무슬림 및 반아랍 사건 관련 접수된 도움 요청 건수는 총 1천2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집계했다고 NYT는 전했다.

유대계 학생들은 특히 최근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일련의 반유대주의 사건들에 경계감을 표하고 있다.

앞서 조지워싱턴대에서는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이 도서관 외벽에 ‘순교자에게 영광을’이라는 구

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사건이 발생했고, 펜실베이니아대에선 유대인 사교클럽 옆에 ‘유대인은 나치’라는 낙서를 한 일이 있었다.

뉴욕의 쿠퍼 유니언 대학에선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던 시위대가 유대인 학생들이 숨어 있던 도서관에 다가가 잠긴 문을 두드린 사건이 소셜미디어에 영상으로 퍼져 화제가 됐다.

코넬대에선 온라인에서 유대인 학생들을 위협하는 글을 올린 학생이 체포된 일도 있었다.

유대인 대학생 단체 간부인 시몬 슈팅거트는 “밖에 나가는 일이 두려울 정도”라며 “2023년에 대학 캠퍼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든 게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반유대주의·반무슬림 이슈를 둘러싸고 미국 대학 캠퍼스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대학측에 반유대주의 대응을 촉구하는 컬럼비아대 학생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방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많은 유대계 학생에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 잔악한 행위를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반유대주의의 교활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여긴다고 NYT는 설명했다.

반면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은 학내에서 과연 이스라엘과 시오니즘에 대한 비판이 용납될 수 있는 나고 반문하는 분위기다.

‘반유대주의’라는 용어는 이스라엘이 가지지구에 저지른 일들로 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지지구 보건당국 집계 기준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라는 용어로 가리려 한다는 것이다.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은 또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

헤이트(극단적 인종차별) 정책에 빗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노천감옥’에 수용한 채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주 스크립스 대학의 팔레스타인 옹호 단체 간부인 애나 바보니는 “우리는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시오니즘(유대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과 편견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유대인 단체와 이슬람교도 단체를 향한 공격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NYT는 “반유대주의 성격의 공격이 발생하면서 대학 내에선 어떤 종류의 발언이 허용될 수의 를 벗어난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은 자신들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비판하는 측에선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의 발언이 매우 불쾌하다고 말한다”라고 전했다.

뉴욕한인회관 낡고 위험 6층 창문틀 인도로 떨어지기도 도로에 접한 쪽 창문 전면 보수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가 그동안 수차례 안전문제가 야기돼 왔던 회관 6층 창문 보수에 나선다.

뉴욕한인회관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지난 번에는 4층 창문이 인도쪽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일이 일어났었다. 또 불과 얼마 전에도 3층 창문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뉴욕한인회는 8일 회관 6층 인도쪽 창문 보수를 위해 창문이 위

지한 공간의 구조물들을 철거했다. 그간 뉴욕한인회 벽면은 이민사 사진 전시물로 덮여 있었고, 이로 인해 회관 6층 창문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번 벽면 철거는 한인회 민사박물관 측의 동의를 얻

어 진행됐고, 당시 박물관 인테리어를 담당할 업체가 직접 철거를 맡았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회관 창문틀이 오랜 시간 부식으로 인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위험천만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이번 기회에 이를 전면적으로 보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수공사에는 도로에 접한 모든 창문틀을 포함해 진행된다.

△ 뉴욕한인회 전화: 212-255-6969

▶ 뉴욕한인회가 그동안 수차례 안전문제가 야기돼 왔던 회관 6층 창문 보수에 나선다. 사진 제공-뉴욕한인회



유한 정비·바디
바디크레임, 인스펙션, 타이어, 토발정비
718-461-1266
718-461-1700
132-39 34 Ave. Flushing, NY

Coway
정수기·청정기·비데·연수기·안마(저번발)
김선희 SunHee Kim
Cell: 646-320-2872
매장: 플러싱 한양마트 (신한은행 건물)

P.O.S. SYSTEM
Restaurant, salon, retail, Liquor store, All business
500.00 Down
30.00 Monthly
With Merchant Service Activation
Maintenance + Insurance Include
SWICH
917.543.8111

도와 주세요 네팔에 지진으로 고아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 이웃 나라 네팔에 지진으로 인하여 수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우리 고아들과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세요. 가장 적은 돈도 꼭 필요합니다. 모든 후원은 **세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후원금은 네팔에 사용되며 후원자와 지출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합니다. 고어헤드선교회는 **UN 파트너로 501C 인 비영리단체**입니다

www.goaheadworld.org

신명기 22:4절 “뭇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후원 Payable to GOAHEAD MISSION
Mail to: 9 E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사)고어헤드 선교회 201-852-3600 (후원) NY Cosmos Gallery